

비대면·마스크에 가로막힌 삶 청각장애인 생활 불편 더 커져



제3회 수어의날을 하루 앞둔 2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남구 농아인센터'에서 농아인들이 수어로 대화하고 있다.

오늘 수어의 날...청각장애인 만나보니

코로나19가 휩쓴 지난 3년 동안 브리핑 현장에서 리드미컬하게 손을 놀리며 표정과 몸짓을 더하는 수화통역사의 모습은 이제 친숙한 장면이 됐다.

하지만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광주지역 청각장애인(농아인)들의 삶은 코로나 이후 더 피폐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기준 광주시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1만 783명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청각장애인들이 듣지 못하기에 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농아인들은 병원이나 은행, 공공기관 등 개인업무는 볼 때 이들의 언어인 수어를 통역해 줄 수 있는 '수화통역사'를 동행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나 5개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는 상주하는 수화통역사가 아예 없고 1만 여명이 넘는 광주지역 농아인들의 수어 통역을 해주는 수화통역사는 1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농아인들은 수화통역사가 필요할 때 '빛고를 수 어누리' 앱이나 광주시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팀에 직접 문의해 신청할 수 있지만, 현재 광주시장 애인복지관에는 6명의 수화통역사만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18명이었던 수화통역사는 자격증을 2년 동안 따지 못하면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등의 이유로 계속 줄었다는 것이 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이다.

수화통역사 한명 당 1800명에 달하는 농아인의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간단한 은행업무를 보거나 급히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최소 3일 전에 통역 신청을 해야 그나마

코로나에 수화통역 친숙해졌지만 표정도 언어인데 마스크에 가려져 상당수 한글 몰라 음식 주문 힘들고 은행·병원 가려면 3일전 통역신청
광주 청각장애인 1만여명 넘지만 수화통역사 되레 줄어 힘겨운 삶

시간을 맞출 수 있을 정도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2일 오후 앱을 통해 현장통역을 신청해보니 '오늘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라며 오는 5일 이후에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글씨로 적어가면서 대화를 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수어사용 실태조사' 결과, 청각장애인의 26.9%가 문자(필답)를 전혀 또는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느 정도 이해한다'는 응답자도 42.6%로 농아인들 상당수가 '문맹'이란 애기다.

청각장애는 대부분 선천적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닌 '수어'다. 문법 체계와 어휘 방식이 전혀 다른 한글은 그저 외국어일 뿐이라는 것이 농아인들의 얘기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제3회 한국수어의 날'(2월 3일)을 맞아 만난 광주지역 농아인들은 그동안 겪은 불편을 호소했다.

농아인들은 지난 3년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한다. 통화를 할 수 없고 일을 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하지만, 비대면이 일상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또 수어에는 표정이 중요한데 마스크에 가려져 소통에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자리잡은 배달문화나 키오스크,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아인인 유정현(여·38)씨는 남들처럼 편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없다. 배달 앱을 켤 수는 있으나 한글을 잘 몰라 주문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씨는 "그나마 배달앱은 주변 한글을 알고 있는 농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키오스크나 드라이브 스루의 경우 소리로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아 불가능에 가깝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초 이들을 기다린 끝에 수화통역사와 은행을 방문한 김정희(여·43)씨도 간단한 통장을 만드는데도 2시간이 걸렸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김씨는 "은행원이 번호표를 뽑지 않고 하염없이 기다리게 해 결국 일반 고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 업무를 볼 수 있었다"면서 "수화통역사를 통하는 3차 대면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 순서를 미룬 것 같다"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상황이 이렇자 농아인들은 문화생활 향유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연극과 영화를 좋아하는 이정민(여·28)씨는 10여년 전 청각을 잃은 후 "문화생활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됐다"고 했다.

이씨는 "그나마 한글을 알아 영화에 자막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인 '가시 볼'을 통해 대략 한 편씩은 보고 있지만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연 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협회 센터장은 "광주과학기술원 등과 협력해 광주중앙박물관에 작품을 수어로 설명해주는 AI서비스를 도입하고 광주 지하철 1호선에는 역 이름을 수어로 안내해주는 화면도 나오게 하는 등 여러모로 농아인을 위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전남소방, 지난해 3분에 한 번 꼴 구급 출동

3시간마다 화재 진압

전남소방안전본부(이하 전남소방)는 지난해 3시간마다 한 번 꼴로 화재를 진압하고, 3분에 한 번 꼴로 구급 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소방이 2일 공개한 '전남소방본부 도의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전남소방에는 60만 4986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화재신고는 전년 대비 18.3% 늘어난 292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8건 수준으로, 3시간마다 1번씩 화재 진압 출동을 한 셈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30명, 부상 70명으로 전년보다 16.3% 증가했으며 재산피해 또한 352억 4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3% 늘었다.

인명 구조 건수 또한 1만 8356건으로 전년 대비 14.4% 뛰었다. 하루 평균 50건의 구조 활동을 해 10명을 구했는데, 인명 구조 사례는 교통사고가

25.5%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22.1%), 위치추적(10.1%) 등이 뒤를 이었다.

구급 출동 건수는 17만 429건으로, 3분마다 1건씩 구급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총 9만 5588명으로 집계됐으며 질병(66.6%), 사고 부상(19.9%), 교통사고(10.1%) 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안전 관련 출동도 3만 1945건으로 하루 평균 87건 수준으로 이뤄졌다. 전년보다 26.5% 증가한 수치로 별집제거(50.2%), 동물구조(22.7%), 잠금장치개방(5.2%) 등 조치가 주를 이뤘다.

응급처치 지도, 의료 자원 제공 등 응급의료상담 활동은 총 5만 20건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급·배수 지원 4232회, 방역 지원 448회를 했으며 411개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혼 통보 아내 잔혹 살해...항소심도 35년형

광주고법 형사1부 선고

이혼 통보 후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13년을 같이 산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새벽 5시30분께 여수 산정동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흥기를 수차례 휘둘러 아내 B씨(3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간 A씨는 아내가 차 문을 잡고 대화를 거부하자 벽돌로 차 유리창을 부순 뒤 아내를 끌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반항하는 아내의 얼굴을 때리며 자신의 차에 태웠지만 아내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자 준

비해 간 흥기를 휘두르고 구호조차도 하지 않은 채 야산으로 도망갔다 불잡혔다.

1심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3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면서 "사망한 B씨가 느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은 선불리 가능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A씨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없었고, 피해자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선거법 위반 정종순 전 장흥군수 항소심도 벌금 250만원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종순 전 장흥군수의 항소심에서 정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군수는 2021년 12월 29일부터 지난해 1월 13일 선거구인 3436명에게 총 202만원 상당의 마스크를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에게 신년 연하장을 보내면서 시가 590원 상당 마스크를 1매씩 담아 장흥 인구의 17%에 달하는 주민들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마스크가 동봉된 연하장 문구를 고려하면 의례적으로 군민들에게 발송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승용차 교통사고 후 화재 해남에서 50대 남성 숨겨

해남시 주행하던 승용차가 사고후 불이 붙어 50대 남성이 숨졌다.

해남경찰청과 소방에 따르면 2일 새벽 1시께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제네시스 운전석에 타고 있던 50대 초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차량은 전소됐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길목에 진입한 차량이 A씨의 차량밖에 없고, 차량의 측면 부분이 찌그러져 있는 등 사고 흔적이 있는 점을 토대로 단독사고 후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과 차량 감식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봄에 떠나는 그라운드의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